



SEA-TAC HARBOR MINISTRY

1118 Port of Tacoma Rd. Tacoma, Washington 98421 Tel. (253) 320-0205
www.seatachm.org / jinkyub@gmail.com / www.tacomaseafarers.com

JUN 2011. 타코마항의 해양선교 소식

타코마항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O 전도선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조영장로님께 문안드리며 타코마항의 4 월 5 월 6 월의 해양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원목 전용선에 승선한 중국선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코마항의 동쪽으로 원목 전용선 부두가 있습니다. 다른 화물과 달리 원목을 LOADING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화물입니다.

지난 1 월에 원목을 싣고 중국으로 떠난 선박은 10 일이 넘도록 정박하고 떠났습니다.

원목전용부두에 중국선원들이 승선한 선박에서 전 화카드가 필요하고 선교센터를 방문할 선원들이 있다는 연락을받고 중국어로 된 성경과 복음이라는

소책자와 조영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중국어 전도자료들을 준비하고 방문했습니다.

중국선원들을 처음 대할 때에는 상냥하지 않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면 진지하게 듣고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여주며 읽어보라면 잘 따라 읽으며 진진하게 듣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중국선교협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5 월자로 전체 중국 인구의 8%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곧 2 억을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중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느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고맙게 받아드리는 사람들로 보아 곧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 모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에 올라 갑판에서 만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필요하다라는 전화카드를 건네주고 전도하기 시작 했습니다.

하역작업중인 선박에서 당직 근무중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원들이 자주 자리에서 이동하며 육상의 하역 책임자와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계속 의논하다보면 주위가 산만하여 진심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럴 때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전

도지를 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판에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내 휴게실에 들어가니 당직 교대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선원들을 만나 전도하고 전도지를 전해 주었으며 선교센터를 방문할 선원들과 함께 선교센터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전도했지만 그날은 예수 믿겠다는 확실한 말을 하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하고 전도자료만 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선교센터를 찾아온 선원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날은 작업중인 배를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출항 전날 다시 배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결과 한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원이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과 다른 전도 책자를 전해 주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예수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장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날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 또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계 모든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항만 사역자들은 선원을 만나고 있는 그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은 다국적 다종교인의 여러나라 선원들이 한 배에 승선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컨테이너 전용 선박을 방선하여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이 배에 몇 나라 선원들이 함께 타고있느냐고 묻게되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접기를 여러번 하던 인디아 삼등항해사는 12 개 나라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다고 들려 주며 아주 즐거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 하기를 잠시 몇 개월동안 배를 타는 것이 마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것 처럼 아주 즐겁다며 여러나라 선원들을 친구로 사귄수도 있고 짧지만 많은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으며 이렇게 서로 어울려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 배에 7~8 개국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12 개국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한 배를 타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작은 사고 한번 없이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로 외로운 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선원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특별히 허가 받은 사람외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 조차 부두나 선박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까다러워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는 선원들 가운데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실제로 미국에 입국해 있으면서도 육지에 발 한번 딛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내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바다로 나가는 선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자를 받지 못하고 외출이 금지된 선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가족과 친지들간에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선박에 WIFI 를 설치해 주었으며 여러대의 휴대 전화기를 빌려 주었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통화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전해주면서 승선중인 선원들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과 전도책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DVD 로 만든 선교영화 등을 전달해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선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 72살의 나이 많은 이태리 3 등기관사 찾아 왔습니다. 30살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어울릴 법한 직책이 3 등기관사인데 이 사람은 서른살에 하급 선원으로 배를 타기 시작하여 여러번 실패한 끝에 아주 늦은 나이에 기관사 시험에 PASS 하고 고급 선원이 된 사람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2년을 배를 타게 되었다는데 내일 마지막 휴가를 받고 배에서 내리게 되면 42년간의 선상생활을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잠시 배를 타고 내려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계획했던 것이 그만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다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이제 다 늙은 늙은이가 되어 손자 손녀가 15명이나 된다고 자랑하며 잔잔히 웃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람이 많이 불던 주일 저녁 시간에 찾아온 사진속의 가운데 미국인 여자 2등항해사였습니다.

인근을 향해 하던 중 수리할 곳이 생겨 타코마항에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예정 항로로 귀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기항지가 바뀌었고 급히 출항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선원입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DESTINATION PORT 의 최근 항해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 항구의 PILOT STATION 까지 항해하는데 필요한 LIGHT HOUSE 와 LIGHT BOUY 위치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그 자료를 프린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요청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다행히 지난날 오랫동안 배를 타며 쌓은 경험이 있기에 당황해 하고 있던 2등항해사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찾아 프린트해 주었더니 목적지 항구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며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타코마 선교센터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원들이 다녀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 대양을 항해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전교용 자료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건조된지 15 일된 인도 선원들이 승선한 배에 올라 전도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동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SCRAPs 부두에 정박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승선한 선박을 찾아 가기로 하고 성경, 전도지, DVD, 전화카드와 전화기 몇대를 준비하고 항만 경비실에 들러 방문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출입을 거절당한 이유는 TWIC CARD 를 소지하지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책임자 되는 분이 돌아서려는 저를 다시 불러 몇가지 질문을 하고 LOADING 작업 중에 부두 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모자와 안전조끼를 빌려주며 안내원 한 사람과 동행하여 다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양쪽 옆으로 산처럼 쌓인 고철 사이를 통과해야하는데 물이 고인 진흙탕속에 날카로운 고철 조각들이 숨어 있



어서 걷기에는 매우 위험한 길이며 배에 고철을 신기 위해 작업하는 크레인 밑을 통과할 때에는 크고 작은 고철 조각들이 무수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안내원은 크레인 운전수와 고철을 나르는 운전수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저를 안전하게 인도 했는데 고철 운반 차량들과 지게차들의 요란한 경적에 놀라 흙탕물속에 발이 여러번 빠지고 말았습니다.

승선하고 보니 건조된지 이제 15 일밖에 안 되는 최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배였습니다.

선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23 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선장을 비롯하여 전 선원이 불교와 이슬람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 가운데 세 사람만 미국 입국비자를 받고 나머지 선원들은 비자가 없어 외출할 수 없는 선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선박에 방선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그들이 요청한 전화 카드와 전화기를 전해주고 선장과 함께 인도식으로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휴게실에 있는 선원들을 만나 선장 출신의 항만목사인 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다음 몇 권의 인도어의 전도책자와 영어로 제작된 선교용 DVD 를 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있던 그 배의 갑판장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그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많은 전도자료들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고맙지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어왔고 그 위의 여러 조상들 때부터 믿어온 불교 신앙을 잠시 만난 선교사의 전도를 들었다고 당신 같으면 당장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겠냐? 하며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당신이 준 책은 출항하여 대양을 항해하는 동안 읽어보겠다고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 있던 선원들과 좀 더 시간을 갖고 교제하며 전도하고 하셨습니다.

하선하여 부두 밖으로 나올 때에도 항만 경비실에서 안내원을 보내주셨고 그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GATE 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고 믿기로 한 선원이 저녁 음식을 사서 들고 왔습니다.

이 선원을 만난 것은 지난 12 월이었고 어느분이 보내주신 많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옆에 있던 필리핀 선원입니다. 원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나마 믿음이 시원치 않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말만 케토릭 신자였습니다. 저하고 네번째 만나는 이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알았



다고 하고는 이리저리 빠져나가 선원인데 지난번 떠날 때에는 성경과 자기 나라언어로 만든 전도자료와 DVD를 가지고 가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염려가되어 지금까지 믿어 오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며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도를 끝낼때에는 잊지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했던 친구입니다.

네번째 만난 이친구는 다음 항구에서 휴가 가기로 되어있어 마지막으로 쇼핑하기 위해 다른 선원들과 같이 제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기도는 몇 번 하느냐 물었더니 피곤해서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없고 기도를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세번씩은 꼭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날 오랫동안 배를 타 본 제 경험으로 보아도 배를 탄다는 것은 가만이 있어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날마다 힘겨운 일을 해가며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하루에도 여러번씩 기도하며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며 잘했다고 위로하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 선교센터에 들어 오겠다고 연락이와서 다른 선원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이 친구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을 굶고 사역하고 있는 저를 위하여 음식과 음료수를 사 들고 들어오면서 잠시 주차장 모퉁이에서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동의하는 눈치여서 차를 좀 한적한 주차장에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저녁시간에 더 바쁘게 사역하느라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것 같더라며 오늘은 자기가 저녁을 사드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데리야끼를 투고해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 시정을 알아주는 이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지내는 것이 일수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엔 컵 라면에 물을 부어 차에 두었다가 쇼핑센터에 선원들을 내려주고 주차장 근처에서 식사를 대신 하고 있는데 그날은 데리야끼를사 온 친구 은덕으로 진수성찬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친구는 두달 휴가를 마치고 다시 타코마로 향해하는 선박에 승선할 것이라며 나를 힘있게 안아주고 선교센터를 떠나 부두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센터의 CHAPEL ROOM 에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롱비치에서 사역할 때에는 넓은 선교센터 건물안에 선원교회가 있었고 선원들과 상담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며 선교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롱비치를 떠난 지금 생각해 보면 선원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사역하시던 황식목사님과 저도지가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과 기타를 메고 정박중인 선박을

찾아 다니며 복음전파와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과 몸이 불편한 중에도 전도용 CD와 DVD를 만들어 선원들에게 전하며 선교하시는 안경목집사와 인도선교사, 필리핀선교사, 유크레이나 선교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코마선교센터의 디렉터이신 폴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의견을 합하여 작은 이동용 건물을 구입하고 이 건물을 CHAPEL ROOM으로 꾸며 선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카펫을 깔고 현관문을 바꾸고 일부 페인트와 설교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한 것 외에는 아무 진척이 없었습니다.

비록 20여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조금도 진척이 없었는데 어느분의 도움으로 6월 21일 전기를 연결하게 되었고 이 분께서는 낡은 선교센터 지붕을 보시고 8월에 REGULAR SHINGLE로 갈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6월은 덥지 않는 날씨지만 CHAPEL ROOM에는 전기 연결이 안돼서 실내가 무덥고 어두워 선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가 불편했는데 이제 아쉬운대로 선원들과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선원들을 위해 조명을 밝힐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월 5월 6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계셨습니다.

4월 5월 6월달도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타코마항에 입항한 188척의 선박에 4,039이 다녀간 중에 1,649명의 선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978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과 전도용 소책자와 예배실황을 녹화한 DVD와 각국 언어로 제작된 전도 자료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SEA-TAC 해양선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전도자료로 협력해 주신 GO 전도선교회와 조영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선교지 소식을 전해 드릴때에는 좀 더 은혜롭고 감사한 가운데 한 사람의 선원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었다는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약속을 드리며 GO 선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사랑하는 조영장로님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JUN 30, 2011

타코마항 PORT CHAPLAIN 배진규 선교사